

여야 총선거획단 띄우고 본격 선거 준비

국힘 이만희 사무총장 단장 12명 총선거획단 구성 민주 첫 회의 현역 페널티 '김은경 혁신안' 등 검토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사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여야가 서둘러 내년 총선을 총지휘하게 될 총선거획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6일 총선거획단을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 11인을 선임하는 등 총 12명으로 꾸려진 총선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

지도부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상수 원내수석부대표, 송상현 홍보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으며 현역 의원 중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 윤창현(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의원이 포함됐다.

원의 인사로는 1980년대생으로 30대인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광관용 경기 남양주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허남주 전북 전주갑 당협위원장, 함인경 변호사 등 4명이 합류했다. 여성은 3명이며, 청년 몫으로 2명이 활동한다.

지역 안배를 위해 서울, 경기, 대전, 전북 지역 당협위원장을 골고루 배치했고 이 사무총장 외

에 영남권 인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거획단도 이날 단장을 맡은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총선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총선거획단은 첫 회의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미래준비 정당·깊이있는 혁신하는 정당을 3대 콘셉트로 정하고 혁신제도·국민참여·미래준비·홍보소통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다음 달 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선거대책위 구성 방안과 '김은경 혁신안'의 총선 관련 제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김은경 혁신안은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6일 사퇴하고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집행 위원회에서 "오늘은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면서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민주노동당 등 노동 세력, 녹색당·진보당·노동당, 지역 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과 '연합정당' 형태로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진보 정치의 어려움은 정의당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정의당 대표인 체계도 그 책임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의당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우뚝 서라고 더 재빨리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당분간 배진교 원내대표 위주로 비대위 구성을 마친 뒤 이번 달 전국위원회, 12월 당대회 및 당원 총투표를 거쳐 선거연합정당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연합정당이란 녹색당·진보당·노동당 등 후보들이 일단 정의당에 들어와 총선을 치르고 총선 이후에는 본래 정당으로 돌아가되 의정활동 협의는 이어간다는 개념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정부·여당 선거용 공수표 남발"

"물가 안정 TF 미봉책 돌려막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전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조삼모사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여당이 잇따라 내놓은 서울 확장론과 공매도 금지 등이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부실하게 설계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사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물가안정 TF(태스크포스)에 대해선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정말 축을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상을 떠는 것 같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 답습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데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신당 접촉설에 비명계 떨떠름

"신당 만들어져도 갈 사람 없을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 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비명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크게 점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신당이 만들어져도 합류할 사람이 없거나 되겠느냐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전 대표의 당면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신당 창당설은) 결국 공천 확보를 위해 자기 몸값을 키우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비명계 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판을 키워 보려고 저러는 것이다", "신당이 만들어져도 갈 사람은 없을 것", "이 전 대표가 비명계와 접촉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도 함께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당이 민주당 표를 가져갈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이 전 대표는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사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본질은 보수 진영의 분열인 만큼 당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공천받을 확률이 낮은 일부 인사가 무소속 출마를 감내하고서라도 탈당할 수 있고, 마침 '이준석 신당'이 뜰 경우 이들이 신당에 합류하는 시나리오는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신당 창당 목적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를 따로 만나 '무소속이라도 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포섭하려면 공통 분모를 만들라'고 조언해줬다"며 "(내가) 신당에 안 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듯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 비명계와 접촉하는 나는 물음에 "틀린 말 하겠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이동관 탄핵안 발의 검토...이르면 9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철승 수석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다"고 답했다.

권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안 발의 시점이 오는 9일 본회의나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 대상이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 중 한 명은 맞다"며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 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정식 단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6선 박병석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6일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선 의원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나의 빈 자리는 시대 소명이 투철하고 균형감각과 열정을 가진 새 사람이 맡아주길 염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제 국회에서의 내 역할은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국회 임기인 내년 5월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

갑에 출마, 당선된 뒤 같은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했다. 21대 여야를 통틀어 국회 최다선이다.

앞서 민주당에서 중진인 이상호 의원과 초선 의원인 오영환 의원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3년 전 고향인 대전에서 출마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며 "대전 서갑 주민들이 호소를 품어줬고, 크나큰 사랑 덕분에 연속 6선 섬김의 기회를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